영어어문교육 *제24권* 2호 2018년 여름

학습자 영어 수준과 듣기 문항 유형의 차이에 따른 고등학생들의 영어 듣기 전략 사용

원 혜 주*
(한양대학교)
김 성 연**
(한양대학교)

Won, Hye Ju & Kim, Sung Yeon (2018). Korean high school students' listening strategy according to their English proficiency and listening item type.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24*****(2), 177-199**

This study examined if Korean high school students'use of English listening strategy would vary according to their proficiency and listening item type. For data collection, 136 high school students were asked to respond to a background information questionnaire, a strategy inventory for listening, an open-ended questionnaire with different types of listening items, and a Likert scale measuring item-specific strategy use. Ten English listening items were taken from three mock SATs and each item type was presented with the questionnaires. The students were asked to solve the questions and then respond to the questionnaires after completing each question. The most frequently used strategy was found to be a compensation strategy. Their strategy use, however, differed according to item types. For questions that measured factual comprehension, they tended to use the compensation strategy. In contrast, for questions asking for inferential comprehension, they used a memory strategy, with which they focused on core information in the listening input. It is notable that they used a cognitive strategy for a question that required some computation. The learner strategy use was also found to be different according to their proficiency level. Learners in the high proficiency group were found to use memory and cognitive strategy more frequently than their counterparts. These findings imply the need for encouraging students to use more varied types of strategies while listening.

[English listening test/strategy use/listening item type/learner proficiency, 영어 듣기 평가/전략 사용/듣기 문항 유형/학습자 능숙도]

---

* 제1저자, ** 교신저자

I. 서론

1994년부터 영어과 수학능력시험에 듣기평가가 반영되기 시작했는데 이후에 교육과정이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 교육을 지향함에 따라 듣기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었다. 그 결과 듣기 영역의 문항 수도 증가하였고, 다양한 유형의 듣기 지문과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고부담 평가인 수능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듣기 능력 신장이 매우 중요하다.

듣기 능력 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노력을 통해 변화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략의 역할이 중요하다. Oxford(2011)는 학습자의 학습 태도나 전략이 외국어 학습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주장하였다. 학습자의 능동적, 주도적 전략 사용이 문제 해결 과정 및 시험 결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Cohen, 2000). Cohen은 시험 상황에서 학생들이 의식적으로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 긍정적인 시험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 자신감을 가지고 다양한 전략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듣기와 관련해서는 O'Malley, Chamot과 Kupper(1989)가 다양한 전략 사용을 통해 듣기 능력이 향상된다고 보고하였고, 듣기 전략 교수의 효과는 많은 연구들을 통해 확인되었다(Guan, 2014; Imhof, 2001).

영어학습에서 듣기의 중요성과 듣기 전략의 필요성이 강조된 가운데, 우리나라의 학교 현장에서도 수능 영어 듣기 평가에 대비하여 듣기 수업을 정규 교과 과정에 편성하여 진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학교 현장에서의 영어 학습은 수능시험에서 출제 비중이 더 큰 독해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Kim, 2006). 즉, 학습자 중심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조하는 추세 속에서 전략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다수의 학습자들은 다양한 듣기 상황에 대처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지 못한 채, 수동적인 자세로 듣기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학습자 관점에서 영어 듣기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실제 듣기 상황이나 시험 상황에서 적극적, 능동적으로 듣기 활동을 수행하기 어렵게 한다. 특히 듣기 능력이 부족하거나 자신감이 부족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영어 듣기가 어려운 과제로 인식되어 포기의 대상이 되고 있다(Lee, 2011).

이와 같은 이유로 학생들이 듣기 문제를 풀 때 어떤 전략을 살펴보는지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이루어진 많은 전략 연구들은 일반적인 학습 전략이나 언어 기능별(읽기, 듣기 등) 전략 사용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제한적이다(박상태, 2010; 차미현, 2011; Guan, 2014; Lee, 2011; Lim & Cha, 2007; Makarchuk, 2017; Pressley, 2000; Vandergrift, 1997, 2003). 무엇보다도 기존 연구들의 문제점은 학습자 자신의 인식에 기반한 설문조사(self-

reported questionnaire)에 근거하고 있어 타당도가 낮은데(Brown, 2014), 이는 설문 조사 결과만으로는 학생들의 실제 전략 사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문항 유형별 학습자 전략 사용을 고찰한 문헌이 있기는 하지만 읽기 평가 문항 유형과 관련된 전략에 관한 것이고(Kim & Chon, 2014; Nam, 2015), 듣기 문항 유형별 전략 사용을 조사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수능과 토플 시험의 듣기 평가에서 사용한 전략을 비교한 연구로 Ko(2016)가 있으나 적은 수(n=36)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수능과 토플 시험에 사용된 전략의 비교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생들이 듣기 문항 유형별로 실제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 조사하고자 한다. 단순히 학생들의 인식에 기반한 설문조사가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 듣기 문항을 풀고 난 후 문제 풀이에 적용한 전략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요약하면, 영어과 듣기 영역의 문제를 풀 때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사용하는 시험 전략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학생들의 전략 사용은 문항 유형별, 수준별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언어 학습에서 중요한 듣기의 성공적인 학습을 위해 전략 사용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어 Murphy(1987)는 ESL 학생들의 전략 사용이 듣기 능숙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듣기 능력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낮은 학생들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ao(1997)와 O'Malley 외 2인(1989)등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발견되었는데 듣기 능력이 높은 학생들이 낮은 학생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공적인 학습자가 다양하고 광범위한 학습 전략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학습에 적용하여 언어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한편, 캐나다 고등학교의 불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사고구술 기법을 통해 수준별 전략 사용을 비교한 Vandergrift(1997)는 학생들의 전략 사용이 전략 유형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 인지 전략의 경우는 수준에 관계없이 사용되는데 반해, 초인지 전략은 상위 수준의 학생들이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청해 감시(comprehension monitoring), 문제 인지(problem identification) 등과 같은 초인지 전략의 사용이 상위 수준과 하위 수준을 구별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학습 전략 연구는 1990년대에 이르러 이론적 틀을 갖추기 시작했고 전략의 유형별 분류도 체계화되기 시작했는데 대표적 연구로 O'Malley와 Chamot (1990), Oxford(1990) 등이 있다. 여러 전략 이론과 분류 체계를 비교 분석

한 Hsiao와 Oxford(2002)는 Oxford(1990)의 전략 분류 시스템이 다양하고 널리 통용된다는 점에서 우월하다고 평가하였다. Oxford는 학습 전략을 크게 직접 전략(direct strategy)과 간접 전략(indirect strategy)으로 구분한 후 직접 전략은 기억 전략(memory strategy), 인지 전략(cognitive strategy), 보상 전략(compensation strategy)으로 분류하였고 간접 전략은 초인지 전략(metacognitive strategy), 정의적 전략(affective strategy), 사회적 전략(social strategy)으로 분류하였다.

Oxford(1990)의 전략 분류 중 문제 풀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전략은 직접 전략인데 그 하위 유형을 살펴보면 기억 전략은 학습자가 습득한 정보를 저장하고 재생하는 것을 도와준다. 또한 새롭게 배운 내용과 기존의 지식을 연관시키거나, 이미지를 활용하여 어휘를 암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한편, 인지 전략은 학습자가 각자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전략으로서 추론하기, 분석하기, 반복하기, 메모하기, 음성·문자 체계 연습하기 등이 있다. 한편, 보상 전략은 학습자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놓친 내용을 언어적·비언어적 단서를 활용하여 보완하는 전략이다.

학습 전략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듣기 지도에서도 전략 사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고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국내에서도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 예로 Kang(1997)은 우리 나라 농촌 지역에 있는 중학교 1, 2, 3학년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회상 면담과 구술사고 기법을 통해 영어 어휘, 듣기, 쓰기 학습 전략 사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생들의 인지 전략, 초인지 전략 사용이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3학년 그룹의 경우 상위 수준의 학생들이 하위 수준의 학생들보다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학생들이 사용한 전략은 언어 영역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듣기의 경우 보상 전략과 상위 인지 전략이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들의 전략 사용에 대한 연구에서도 듣기 능숙도가 높은 학생들이 훨씬 다양한 전략들을 사용한다는 것이 보고되었다(Chung, 2006).

학생들의 듣기 전략과 실제 듣기 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연구들도 많이 진행되었는데 그 결과 듣기 능숙도와 전략 사용 간에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Kim, 1999; Lim & Cha, 2007). 한편, 전략 훈련에 대한 연구들도 수행되었는데, 박봉현(2001)은 보상 전략과 인지 전략 훈련이 듣기 이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조사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보상 전략은 듣기 상황과 관련된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고 주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인지 전략은 학생들이 듣기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학습자 수준에 알맞은 듣기 학습 전략 훈련이 영어 듣기 능력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영어 청해력이 높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듣기 전략(특히, 초인지 전략)을 많이 사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Moon, 2005).

그밖에도 학습자 수준에 따른 듣기 전략 사용을 비교 분석한 차미현(2011)

은 상위 수준의 학습자들이 듣기 학습 전략을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인지 전략, 보상 전략, 초인지 전략, 사회 전략의 순으로 전략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흥미롭게도 상위 수준 학습자가 하위 수준 학습자보다 보상 전략과 초인지 전략을 유의미한 수준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n=104)들을 대상으로 듣기 능력과 전략 간의 관계를 조사한 Lee(2011)의 연구에서도 듣기 능력 수준에 따라 전략 사용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듣기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이 낮은 학생들보다 기억, 인지, 보상 전략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듣기 전략뿐 아니라 정의적 변인인 불안을 함께 분석한 연구들도 진행되었는데, 박상태(2010)는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듣기 전략과 불안을 조사하고 이 변인들이 듣기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이 영어 듣기를 할 때 상위 인지 전략, 인지 전략, 기억 전략, 보상 전략, 사회·정의적 전략의 순으로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듣기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학생일수록 시험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정도가 낮았으며 상위 학습자들이 연습하기, 예측하기, 추론하기 등의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요약하면 과거에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은 일반적인 학습전략이나 읽기, 듣기 등의 특정 언어 기능과 관련된 학습 전략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박상태, 2010; 차미현, 2011; Lee, 2011; Lim & Cha, 2007; Makarchuk, 2017; Vandergrift, 2003). 이에 반해, 학생들이 실제 문제 풀이 과정에서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 고찰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시험 상황에서의 전략 사용을 조사한 연구들이 있기는 하지만 읽기 평가와 관련된 전략 연구들이거나(Nam, 2015) 듣기 평가와 관련된 연구의 경우 토플 평가와 수능시험에서의 전략 사용을 비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 표본이 적어 한계가 있다(Ko, 2016).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유형의 듣기 문항을 풀면서 실제로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 조사, 분석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질문

본 연구는 한국 고등학교 학생들이 듣기 시험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사용하며, 전략 사용은 듣기 문항 유형별, 학습자 수준별로 차이가 있는지 조사,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학생들은 영어과 모의고사 듣기영역을 풀며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가?

2) 학생들의 전략 사용이 듣기 문항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가?
3) 학생들의 전략 사용은 학습자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연구대상

본 연구에는 서울, 경기 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의 1~3학년 학생 136명이 참여하였는데 이들 중 71명은 서울 소재 인문계고와 외국어고의 학생들이었고 65명은 경지 지역 학교의 학생들이었다. 전체 학생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여학생(n=97)이 남학생(n=39)보다 많았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 중 46.3%가 영어 모의고사 성적 향상을 위해 매일 1시간~3시간의 시간을 투자한다고 답하여 학구열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또한, 영어 성적 분포를 보았을 때 내신 81점~100점(56.7%), 모의고사 85점~100점(47.8%) 구간에 해당하는 학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준별 전략 사용을 비교하기 위해 2015년 3월 모의고사 등급에 따라 학생들을 2개의 수준(상위, 하위)으로 나누었는데, 그 결과 상위 수준(1~3 등급)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73명, 하위 수준(4~8 등급)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63명이었다. 한편, 영어 듣기 전략을 학습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수는 32명(23.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참여자 중 99명(72.8%)의 학생들이 영어권 국가에 거주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도구

본 연구는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볼 때 사용하는 전략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듣기 학습에 대한 배경 정보 설문지, 전반적 듣기 시험 전략 설문지, 문항 유형별 전략 사용에 대한 설문지 등의 검사지를 개발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학습자 배경 정보 설문지

학습자 개인 배경 정보를 조사하기 위해 박경례(2006)의 학습자 배경 설문지 내용을 참조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학습 배경 설문지는 개방형과 선택형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개방형 문항에는 영어 모의고사 성적, 해외 유학 및 연수 경험, 영어 듣기 문제를 풀 때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한편, 선택형 문항에는 평소 영어 공부 시간, 영어 학습 방법, 영어 듣기 향상을 위한 학습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2) 전반적 듣기 시험 전략 설문지

전반적 듣기 시험 전략에 관한 설문지는 Oxford(1990)의 직접 전략(direct strategy) 중 기억, 인지, 보상 전략들의 세부 전략들 중에서 시험 상황과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표 1
전반적 듣기 시험 전략 문항

전략 영역	질문 내용
기억 전략	1. 대화 내용이나 상황을 마음속으로 상상하기
	2. 핵심 사항에 집중하기
	3. 대화 상황과 개인적인 경험을 연관 지어보기
인지 전략	4. 답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선택지 제거하기
	5.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메모하거나 요약하기
	6. 대화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하며 듣기
	7. 다음 내용이 무엇일지 예측하며 듣기
보상 전략	8.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건너 뛰고 다음 문장에 집중하기
	9. 대화 상황을 통하여 대화 내용 유추하기
	10. 개별 단어에 집중하지 않고 전체 대화 내용 이해해보기
	11. 주어진 자료를 보고 내용 추측하기
	12.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대화 상황을 통하여 유추하기

또한, 선행 연구(정혜진, 2002; 차미현, 2011)의 설문 문항 구성을 참고하여 한국 고등학생들의 시험 상황과 연계하여 설문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한편 시험 상황과 관련된 소거하기 전략은 인지 전략의 유형으로 새롭게 추가되었다. 요약하면 기억 전략 3문항, 인지 전략 4문항, 보상 전략 5문항(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문항별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설문지 문항들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Likert-type Scale)로 제시되었다. 설문지의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나타내는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를 구한 결과 .876이 산출되었다.

3) 영어 듣기 문항 유형별 전략 사용에 대한 설문지

이 설문은 학생들이 영어 듣기 문항 유형별로 전략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듣기 문항과 연계하여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기존 검사지와 차별화된다. 검사지를 구성하기 위해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문제를 왼쪽에 배치하고, 개방형과 선택형 설문 문항을 오른쪽에 제시하였다. 2014년에 실시된 영어과 모의고사 듣기영역에서 문항 종류별로 한 문항씩 발췌하여 총 10개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검사지는 사실적 이해(1번, 3번, 4번, 5번, 6번, 10번)를 측정하는 6개 문항과 추론적 이해(2번, 7번, 8번, 9번)를 평가하는 4개 문항 등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표 2).

표 2

듣기 문항 유형별 전략 사용 검사지: 듣기 문항 유형 및 내용

	문항 내용	분류	문항 출처
1번	대화를 듣고,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사실	2014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7번
2번	다음을 듣고,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추론	2014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3번
3번	대화를 듣고, 남자가 여자에게 부탁한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사실	2014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9번
4번	대화를 듣고, 인턴십 프로그램에 관해 두 사람이 언급하지 <u>않은</u> 것을 고르시오.	사실	2014년 9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10번
5번	Art Center Video Contest에 관한 다음 내용을 듣고, 일치하지 <u>않는</u> 것을 고르시오.	사실	2014년 9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11번
6번	대화를 듣고, 남자가 지불할 금액을 고르시오.	사실	2014년 9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9번
7번	대화를 듣고, 여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바꾼 이유를 고르시오.	추론	2014년 9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8번
8번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추론	2014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4번
9번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추론	2014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5번
10번	다음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선택할 워크숍을 고르시오.	사실	2014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12번

각각의 설문지는 2단계에 걸쳐 실시되었는데, 1단계에 사용한 개방형 설문지를 예시하면 그림 1과 같다. 즉, 설문 상단에 예를 제시한 후, 왼쪽에는 듣기 문제를 배치하였고 오른쪽에는 해당 문제 풀이에 사용한 전략을 적을 수 있도록 개방형 문항을 제시하였다.

그림 1
문항 유형별 전략 사용 설문지 (1단계, 개방형)

문제	답을 맞추기 위해 내가 쓴 나만의 노하우
1. 대화를 듣고, 여자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식사하는 시간을 지켜야 한다. ② 가능한 한 전기를 아껴야 한다. ③ 정기적으로 시력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건강하려면 과일을 많이 먹어야 한다. ⑤ 컴퓨터 게임을 너무 오래 하지 않아야 한다.	모르는 단어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을 모아서 최대한 내용을 이해해보려고 했고, 중요한 단서 같은 것은 따로 필기해서 듣기를 끝내고 문제를 풀 때 활용했다.

문제	답을 맞추기 위해 내가 쓴 나만의 노하우
1. 대화를 듣고,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설문 2단계에는 선택형 설문지(그림 2)가 제시되었는데 학생들은 1단계에서 녹음된 내용을 들으며 문제를 풀었던 경험을 회상하며 설문에 응답하였다. 선택형 설문지는 인지 전략 2문항(1번, 2번), 기억 전략 2문항(3번, 4번), 보상 전략 2문항(5번, 6번)으로 구성되었다. 기억, 인지, 보상 전략과 관련된 6개의 설문 문항은 10개 듣기 문항들과 함께 제시되었으며 각 문항의 응답의 범위는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제시되었다. 설문 문항별 신뢰도 계수는 문항별로 근소한 차이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번(.66), 2번(.64), 3번(.77), 4번(.73), 5번(.72), 6번(.68), 7번(.69), 8번(.75), 9번(.76), 10번(.61)으로 나타났다.

그림 2
문항유형별 전략 사용 설문지 (2단계, 선택형)

문제	설문 문항	해당 질문의 답번에 체크해주세요.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화를 듣고,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1. 나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선택지를 하나씩 제거하며 문제를 풀었다.					
	2.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메모하거나 요약하며 문제를 풀었다.					
	3. 나는 대화 내용을 **더 잘 기억하기 위하여** 핵심 사항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집중하며 문제를 풀었다.					
	4. 나는 대화 내용을 **더 잘 기억하기 위해** 대화 상황을 마음속에 상상하며 문제를 풀었다.					
	5. 나는 대화 상황을 통하여 대화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유추했다.					
	6. 나는 못 들은 문장에 집착하지 않고, 빨리 다음 문장에 주의를 기울였다.					
	☞1번 문제를 풀기 위해 자신이 사용한 특별한 방법이나 요령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4. 자료 수집 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자료 수집을 위해 3차에 걸쳐 설문을 실시하였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설문 절차

설문 순서	설문지
1일차	영어학습 배경 설문, 전반적 영어 듣기 시험 전략 설문 문항별 시험 전략 사용 설문(1단계 개방형) 1번~5번
2일차	문항별 시험 전략 사용 설문(1단계 개방형) 6번~10번
3일차	문항별 시험 전략 사용 설문지(2단계 선택형) 1번~10번

자료 수집을 위해 우선 영어 학습 배경 설문과 전반적 듣기 시험 전략 검사를 실시하였다. 문항 유형별 전략 사용을 조사하는 설문지의 경우 학생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확보하기 위해 10개의 듣기 평가 문항을 다섯 문항씩 나누어 이틀에 걸쳐 검사를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매 문항의 풀이가 끝날 때마다 각 문항에 대한 답을 문항별 답지에 표시했다가 평가가 완료되었을 때, 답지 전체를 제출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매 듣기 문항이 끝났을 때마다 30초 동안 개방형 설문에 대한 답으로 문제 풀이에 사용한 시험 전략을 기술하였다. 이틀에 걸쳐 실시된 개방형 설문이 끝나고 3일차에 선택형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때 학생들이 좌측에 제시된 문제를 확인하고 풀이 과정을 회상하며 설문에 응답하도록 안내하였다. 선택형 설문 문항 하단에 여백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자신이 사용한 전략을 추가로 기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한편, 자료 분석을 위해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값의 빈도, 평균, 표준편차 등을 제시하는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학습자 수준에 따른 전략 사용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문항별로 제시된 개방형 질문에 대한 학습자 답변은 전략 유형별로 분류한 후 코딩 하였다.

Ⅳ. 연구결과

1. 학생들의 전반적 듣기 시험 전략

연구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이 듣기 시험 상황에서 사용하는 전략과 관련하

여 유형별로(표 1참조) 기술 통계 값을 구한 결과, 보상 전략의 평균값이 3.47로 가장 높았고 기억 전략(3.17), 인지 전략(3.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략 유형별 평균 점수 값의 분포를 통해 기억 전략과 인지 전략의 점수 값은 근소한 차이를 보였던데 반해 보상전략의 점수 값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모의고사 상황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 보상 전략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은 김은이(2014), 정혜진(2002)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전략 유형별로 세부 문항의 내용에 대해 동의한 비율(응답 범위 중 4 또는 5를 선택한 경우)을 분석했을 때 기억 전략과 관련해서는 “듣기 내용을 더 잘 기억하기 위하여 핵심 사항에 집중하기”에 동의한 응답자 비율(62.5%)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인지 전략의 세부 문항들 중에서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선택지를 제거하기”에 동의한 학생들의 비율이 66.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보상 전략과 관련된 세부 문항에서는 전반적으로 동의율이 높았는데 유추하기와 관련된 문항들에 대한 동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대화 상황을 통하여 대화 내용 유추하기”(61%),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대화 상황을 통하여 유추하기”(60%) 문항에 대한 동의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보상 전략의 활용 빈도가 높은 것은 다른 선행연구들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박봉현, 2001; 정혜진, 2002; 차미현, 2011; Kang, 1997).

2. 학생들의 듣기 문항별 시험 전략

듣기 문항별로 학생들이 사용하는 시험 전략을 조사하기 위해 전략 관련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값의 빈도,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응답자가 해당 문항에 대해 4 또는 5를 선택한 경우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빈도를 집계하였다. 학생들은 1단계 개방형 설문에서는 문제 풀이 직후 문제 풀이 비법을 서술하였고, 2단계 선택형 설문에서는 기억, 인지, 보상 전략 설문 문항(6개 항목)을 읽고 5점 척도로 동의 정도를 표시하였다.

학생들이 각 문항에서 활용한 전략을 분석한 결과 평가 영역(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별로 일관된 패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제 풀이에 사용된 전략들을 평가 영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실적 이해 평가 문항

듣기 1번 문제는 대화문을 듣고 그림에서 대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골라야 하는 것으로 사실적 이해를 측정하는 문항이다. 이 문항을 푼 후 학생들은 1단계 개방형 설문에서 인지 전략과 보상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들은 인지 전략에 해당하는 소거하기 전략을 가장 많

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7.8%). 구체적으로 학생들은 “답을 하나씩 지워가며 풀었다,” “그림과 해당되는 문장을 하나씩 비교하여 답이 아닌 것을 지웠다,” “맞는 사실을 제외시켰다” 등의 답변을 서술하였다.

이와 같은 양상은 2단계 선택형 설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에 제시된 선택형 설문 결과를 논의하기에 앞서 전략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지 전략1(답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선택지를 하나씩 제거하기)과 인지 전략2(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메모하거나 요약하기)는 직접 전략으로서 학습자가 듣기를 하면서 답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을 소거하거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요약, 메모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한편, 기억 전략1(대화 내용을 더 잘 기억하기 위하여 핵심 사항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집중하기)과 기억 전략2(대화 내용을 더 잘 기억하기 위해 대화 상황을 마음속에 상상하기)는 듣기 입력 중 핵심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정보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구체화하여 이를 문제 풀이에 활용하는 전략이다. 학생들의 전략 사용 응답률을 조사한 결과, 대화를 듣고 그림을 고르는 사실적 이해 문항(듣기 1번)에서 가장 비중이 높았던 전략은 보상 전략2(집중하기)로 나타났고(55.9%), 근소한 차이로 인지 전략1(소거하기)이 두 번째로 높았다(53.7%).

표 4

2차 선택형 설문-1번 문항의 전략 사용 분석

전략 구분	문항 세부 내용	1	2	3	4	5	M (SD)
기억1	대화 내용을 더 잘 기억하기 위하여 핵심 사항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집중하기	10.3	15.4	31.6	33.1	9.6	3.2 (1.1)
기억2	대화 내용을 더 잘 기억하기 위해 대화 상황을 마음속에 상상하기	8.1	20.5	37.5	22.1	11.8	3.1 (1.1)
인지1	답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선택지를 하나씩 제거하기	0.7	8.8	36.8	27.2	26.5	3.7 (.98)
인지2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메모하거나 요약하기	1.4	36.8	33.8	22.1	5.9	2.9 (.94)
보상1	대화 상황을 통하여 대화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유추하기	4.4	27.9	19.9	31.6	16.2	3.3 (1.2)
보상2	못 들은 문장에 집착하지 않고, 다음 문장에 주의 기울이기	1.5	2.2	40.4	32.4	23.5	3.7 (.89)

1: 전혀 아니다, 2: 아니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각 셀의 숫자는 응답 비율; M (SD): 평균(표준편차)

1단계 개방형 설문과 2단계 선택형 설문에서 오답 소거하기 전략이 일관되게 높게 나와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보상 전략 2는 학생들의 서술에서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선택형 문항에서는 응답률이 높았는데

이는 듣기 자료의 특성상 듣다가 놓친 부분에 집착하지 않고 다음 문장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한편, 기억 전략2(33.9%)와 인지 전략2(28%)는 상대적으로 활용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번 문항의 경우 그림이라는 단서가 추가로 제공되기에 대화를 들으면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부분을 그림에서 파악하여 답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문항 특성을 고려했을 때, 학습자들이 들은 내용을 메모하거나 중요한 점을 요약해야 할 필요 없이, 그림을 바로 비교하면서 정답을 찾았던 것으로 이해된다.

듣기 4번 문제(대화를 듣고, 인턴십 프로그램에 관해 대화자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고르시오)도 사실적 이해를 측정하는 유형이었는데, 흥미롭게도 개방형 설문 결과, 이 문항에서도 인지 전략 중 하나인 소거하기(37.5%) 전략이 많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이 서술한 답변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시하면 “보기에 하나씩 표시하면서 듣는다,” “언급한 것만 지워가면서 답을 찾았다” 등이 있었다. 이와 같은 양상은 2단계 설문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는데, 학생들은 소거하기와 관련된 인지 전략(52.2%), 이해되지 않는 문장에 집착하지 않고 다음 문장에 주의를 기울이는 보상 전략(50.7%), 핵심 사항에 집중하는 기억 전략(47.1%) 등에 대해 설문 1, 2 단계에서 모두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이는 듣기의 특성상 주의 집중이 중요하며 오답을 제거하는 소거 전략은 시험 전략으로서 많이 강조, 교육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듣기 4번 문항은 내용 전체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풀 수 있는데 듣기 자료의 세부 정보가 순차적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택지와 비교하면서 인지 전략(소거하기)을 적극적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듣기 5번 문항(Lewis Art Center Video Contest에 관한 다음 내용을 듣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도 사실적 이해를 측정하는 유형이었는데, 4번 문항에서와 같이 학생들은 1단계 설문에서 인지 전략에 해당하는 소거하기 전략(56.6%)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답하였다. 2단계 설문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나타났는데, 학생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던 것은 소거하기와 관련된 인지 전략1(58.9%)이었으며 핵심 사항에 집중하는 기억 전략1(56.6%)의 사용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상상하기와 관련된 기억 전략2(43.4%)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사실적 이해 문항 중 1, 4, 5번 문항에서 학생들의 응답이 1, 2단계에 걸쳐 일관된 양상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우선 1단계 설문을 통해 소거하기 전략을 전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단계 척도형 설문에서도 일관된 양상을 보였는데 학생들은 소거하기, 핵심 사항에 집중하기, 주의 집중하기 등의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듣기 4, 5번과 같이 세부 사항이나 내용 일치를 묻는 문항들의 특성상 순차적으로 제시되는 내용을 들으면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답에서 찾아야 하고 대화 내용에서 핵심 사항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 전략1의 사

용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대화 내용을 듣고 세부 사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 듣기 3번 문항(대화를 듣고, 남자가 여자에게 부탁한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과 관련해서는 기억하기 전략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단계 개방형 설문에서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기술한 전략은 기억 전략에 해당하는 핵심 사항 기억하기인 것으로 나타났다(31.8%). 학생들이 응답한 내용을 예시하면 “필요 없는 앞의 내용은 대충 흘려 버리고,” “could you~ 등의 권유의 표현이 나온 곳에 더 집중해서 대화 내용을 이해했다.”“남자가 말한 중요한 단어를 계속 기억하면서 들었다” 등이 있었다.

선택형 설문에서는 보상 전략1(56.6%)과 보상 전략2(52.2%)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듣기 자료의 특성상 주의 집중은 문항 유형에 관계없이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이해되며 세부사항 파악 여부를 측정하는 3번 문항의 경우 사실적 이해뿐 아니라 추론 능력도 중요하게 관여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세부사항 파악 능력을 측정하는 3번 문항의 특성상 핵심 사항을 기억하거나(46.3%) 대화 상황을 마음에 상상하기(49.2%) 등의 기억 전략을 사용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메모, 요약하는 인지 전략2(41.9%)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편, 계산을 요하는 사실적 이해 문항(대화를 듣고 남자가 지불할 금액을 고르시오) 6번에 대해 1단계 설문에서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기술한 전략은 인지 전략 중 하나인 메모하기 전략(62.6%)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응답을 구체적으로 예시하면 “대화에 나오는 요금을 써가면서 문제를 풀었음,” “대화 내용을 요약해서 중요한 것만 필기하였다,”“금액을 받아 적고 남자의 말과 여자의 말에 적용하며 풀었음” 등이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2단계 설문에서도 확인되었는데,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전략은 메모, 요약하기와 관련된 인지 전략2(61.1%)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핵심 사항에 집중하는 기억 전략1(56.7%)의 비중도 높게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이 문항의 경우 소거하기와 관련된 인지 전략1(44.1%)의 사용 비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듣기 자료에 제시된 숫자를 단순히 선택지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계산할 것을 요구하는 6번 문항의 특성 때문이다. 학습자 관점에서 핵심 정보를 선택적으로 듣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들은 내용을 메모하고 요약하는 인지 전략2(61.1%)와 핵심 내용 파악에 필요한 기억 전략1(56.7%)의 활용이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문항 10번(다음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선택할 워크숍을 고르시오)도 사실적 이해 문항인데, 개방형 설문 실시 결과 1번(그림 보고 고르기)에서와 같이 학생들이 소거하기 전략(45.6%)을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서술한 답변을 인용하면 “표를 보고 대화 내용에서 안 나온 것을 지우면서 풀었다.”“표에서 나온 순서대로 대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대화랑 비교하면서 아닌 것을 지웠다" 등의 응답이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2단계 선택형 설문 결과에서도 관찰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소거하기와 관련된 인지 전략1(57.3%)을 사용한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유추와 관련된 보상 전략1(55.1%), 주의 집중과 관련된 보상 전략2(54.4%), 핵심 사항에 집중하기와 관련된 기억 전략1(52.9%)의 사용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눈에 들어오도록 시각적으로 제시된 그림(1번 문항)과는 달리 표에 들어가 있는 정보를 이해하고 이를 대화 내용과 비교하면서 답을 찾아야 하는 10번 문항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즉, 대화를 듣고 표를 참조하여 답을 유추하기 위해서는 핵심 사항에 집중하기, 주의 집중하기, 유추하기, 소거하기 등의 다양한 전략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야 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2) 추론적 이해 평가 문항

대화를 듣고 발화의 목적을 추론하는 듣기 2번 문항(다음을 듣고,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과 관련하여 1단계 설문에서 응답자들은 기억 전략에 해당하는 핵심 사항 기억하기(27.9%)를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학생들이 개방형 설문에서 기술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요한 단어에 집중하면서 문제를 풀었다." "남자가 언급한 단어 중에서 중요한 것을 기억해 문제를 풀었다" 등이 있었다.

표 5

2차 선택형 설문-2번 문항의 전략 사용 분석

전략 구분	문항 세부 내용	1	2	3	4	5	M (SD)
기억 1	대화 내용을 더 잘 기억하기 위하여 핵심 사항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집중하기	4.4	10.3	38.2	30.9	16.2	3.4 (1.0)
기억 2	대화 내용을 더 잘 기억하기 위해 대화 상황을 마음속에 상상하기	8.1	36	27.9	24.3	3.7	2.79 (1.0)
인지 1	답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선택지를 하나씩 제거하기	9.6	19.1	30.1	22.1	19.1	3.2 (1.2)
인지 2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메모하거나 요약하기	9.6	20.6	30.1	22.8	16.9	3.2 (1.2)
보상 1	대화 상황을 통하여 대화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유추하기	5.9	11.8	29.4	33.8	19.1	3.5 (1.1)
보상 2	못 들은 문장에 집착하지 않고, 다음 문장에 주의 기울이기	3.6	12.5	29.4	32.4	22.1	3.5 (1.1)

1: 전혀 아니다, 2: 아니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각 셀의 숫자는 응답 비율; M (SD): 평균(표준편차)

반면 2단계 선택형 설문 조사에서는 대화 상황을 통하여 대화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유추하기(54.5%)와 못 들은 문장에 집착하지 않고 다음 문장에 주의 기울이기(52.9%) 등과 같은 보상 전략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1단계 개방형 설문에서 기억 전략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던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듣기 입력의 특성상 주의 집중이 중요하고 추론적 이해를 묻는 문항이기에 유추하기 전략이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2번 문항에서와 같은 양상이 7번 문항(대화를 듣고, 여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바꾼 이유를 고르시오)에서도 나타났는데, 우선 1단계 설문에서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기술한 전략은 핵심 사항에 집중하는 기억 전략1(23.5%)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기술한 내용을 예시하면 “여자가 하는 말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여자가 하는 말을 계속 기억하며 들었다,” “privacy에 관한 말을 하는 것 같아서 비슷한 단어들에 집중했다” 등이 있었다. 이와 같은 응답 패턴은 2단계 설문에서도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핵심 사항에 집중하는 기억 전략1(54.4%)에 대한 동의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추론적 이해를 측정하는 문항의 특성상 유추하기와 관련된 보상 전략1(59.6%)의 활용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소거하기와 관련된 인지 전략1(38.2%)의 활용률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7번 문항이 대화의 세부 내용뿐 아니라 전체적 흐름과 분위기를 파악하여 정답을 선택하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때문에 소거하기보다는 유추하기, 핵심사항 파악하기 등과 관련된 보상 전략, 기억 전략이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대화를 듣고 주제를 파악하는 8번 문제(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하는 말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도 추론적 이해 문항인데 전략 사용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응답이 7번 문제를 풀고 답했을 때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즉, 1단계 개방형 설문 실시 결과, 핵심 사항에 집중하는 기억 전략1(29.4%)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기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honey bee와 fruit라는 단어를 계속 기억했다가 듣기 내용을 다 들은 후에 선택지에서 답을 골랐다,” “반복되는 문장이 중요한 것 같아서 계속 그 부분에 집중하여 듣기를 이해했다” 등이 있었다. 한편, 2단계 선택형 설문에서는 핵심 사항을 기억하는 기억 전략1(47.8%)의 비율도 높았지만 유추하기와 관련된 보상 전략1(52.3%)과 주의 집중과 관련된 보상 전략2(49.3%)를 사용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훨씬 높았다. 이에 반해 상상하기와 관련된 기억 전략2(39.7%)의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 대화 내용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정답을 추론할 것을 요구하는 8번 문항의 특성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즉, 문항의 특성상 유추하기와 관련된 보상 전략1(52.3%)과 집중과 관련된 보상 전략2(49.3%)가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주제를 추론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핵심 정보를 인식해야 하기에 이를 위해 기억 전략1(47.8%)과 메모하기와 관련된 인지 전략2(45.6%)

도 대체로 많이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주제 추론 문항(8번)에서와 같이 화자들의 관계를 추론하는 9번 문항(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에서도 핵심 사항에 집중하는 기억 전략(25.7%)이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응답 내용을 예시하면 “orchestra라는 단어와 interview라는 단어를 기억하여 대화 내용을 이해했다,” “직업과 관련된 단어를 기억해서 답을 골랐다” 등이 있었다. 추론 문항이기 때문에 2단계 설문 결과 유추하기와 관련된 보상전략1(56.6%)이 많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흥미롭게도, 8번과 9번 문항 모두 추론 문항이지만 주제를 추론하는 8번 문항에서 유추하기와 집중하기 전략이 많이 사용되었던데 반해, 9번 문항에서는 핵심 사항에 집중하는 기억 전략1(53.6%)과 상상하기와 관련된 기억 전략2(52.3%)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화자 간의 관계를 추론하는 9번 문항의 풀이를 위해서 학생들이 대화문에서 제시된 어휘를 활용하여 화자들의 관계를 상상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요약하면 추론적 이해를 측정하는 4개의 문항(2, 7, 8, 9번)에서 학생들은 핵심사항 기억하기 전략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사항 기억하기 전략은 2단계 선택형 설문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는데 그 외에도 유추하기, 집중하기 등의 전략을 많이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화자 간의 관계를 추론하는 9번 문항에서는 상상하기 전략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추론적 이해를 측정하는 문항들의 성격과 내용은 다르지만 학습자의 전략 사용 양상은 유사했음을 알 수 있다.

3. 학습자 수준에 따른 전략의 차이

학습자 수준별로 전략 사용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비교한 결과 보상 전략의 경우 상위, 하위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이는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보상 전략, 특히 소거하기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에 인지 전략과 기억 전략 측면에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구체적으로 상위 수준의 학생들이 하위 수준의 학생들보다 인지, 기억 전략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적 이해와 추론적 이해를 측정하는 문항들 중 학습자 수준에 따른 전략 사용의 차이를 보여주는 문항을 예시하면 표 6, 표 7와 같다. 우선, 세부 사항을 파악하는 사실적 이해 문항(4번)의 풀이에 사용된 전략을 학습자 수준에 따라 비교한 결과(표 6 참조), 상위 수준의 학생들이 하위 수준의 학생들보다 메모/요약하기(인지전략2), 핵심 사항에 집중하기(기억전략1)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학습자 수준별 전략 사용 (사실적 이해, 4번 문항)

전략 구분	집단	N	평균	t	유의확률 (양쪽)
인지전략2	상위집단	73	3.59	2.823	.005*
	하위집단	63	3.11		
기억전략1	상위집단	73	3.62	2.273	.027*
	하위집단	63	3.16		

한편, 화자 간의 관계를 유추하는 추론적 이해 문항(9번)의 풀이에 사용된 전략을 학습자 수준에 따라 비교한 결과(표 7 참조), 상위 수준의 학생들이 하위 수준의 학생들보다 메모/요약하기(인지전략2), 상상하기(기억전략2)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습자 수준별 전략 사용에 대한 결과를 통해 수준에 관계없이 학생들은 보상 전략을 많이 사용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기억, 인지 전략의 경우 상위 수준의 학생들이 하위 수준의 학생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가 영역(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에 관계없이 상위 수준의 학생들은 하위 수준의 학생들보다 메모하기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학습자 수준별 전략 사용 (추론적 이해, 9번 문항)

전략 구분	집단	N	평균	t	유의확률 (양쪽)
인지전략2	상위집단	73	3.56	3.693	.000*
	하위집단	63	2.81		
기억전략2	상위집단	73	3.55	2.028	.047*
	하위집단	63	3.11		

평가 영역별로 학습자 전략 사용의 차이를 수준별로 비교하면 사실적 이해 문항에서는 상위 수준의 학생들이 핵심 사항에 집중하기 전략을 더 많이 사용했던데 반해, 추론적 이해 문항에서는 상상하기 전략을 더 많이 사용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기억, 인지 전략은 학생들이 듣기 입력 자료를 통해 파악한 정보를 나름의 방법으로 재구성하여 이해하기 쉽게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기억, 인지 전략을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했던 상위 수준의 학습자들이 하위 수준의 학습자들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듣기에 임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한국의 고등학생들이 영어과 모의고사 듣기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어떤 시험 전략을 사용하며, 전략 사용은 문항 유형 및 학습자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조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136명을 대상으로 영어학습 배경, 전반적 듣기 시험 전략, 문항별 전략 사용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생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학생들은 듣기 시험 상황에서 대화 상황을 유추하는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핵심 사항에 집중하기나, 답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선택지 제거하기 등의 전략을 사용하는 비율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전략 사용은 문항 유형별, 수준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실적 이해를 측정하는 문항에서는 선택지 제거하기 전략과 함께 대화를 기억하기 위해 핵심 사항에 집중하거나 못 들은 문장에 집착하지 않고 다음 문장에 집중하는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화를 듣고 그림을 골라야 하는 1번 문항의 경우 선택지 제거하기, 다음 문장에 집중하기 등의 전략을 사용했던데 반해 대화를 들으며 표의 정보를 처리하고 답을 골라야 했던 10번 문항의 경우에는 선택지 제거하기, 대화 상황 유추하기, 다음 문장에 집중하기, 핵심 사항에 집중하기 등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흥미롭게도 계산을 요구하는 문항의 경우에는 메모, 요약하기 전략과 핵심 사항에 집중하기 등의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추론적 이해를 요구하는 문항들에 대해서는 대화를 더 잘 기억하기 위해 핵심 사항에 집중하거나 대화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유추하기 등의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준별 전략 사용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수준에 관계없이 답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선택지를 제거하는 전략을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반면에 수준에 따른 전략 사용의 차이도 있었는데, 상위 수준의 학생들은 하위 수준의 학생들보다 기억, 인지 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평가 영역(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에 관계없이 메모/요약하기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영역별로 살펴보면, 사실적 이해 문항에서 상위 수준의 학생들은 하위 수준의 학생들보다 핵심 사항에 집중하거나 메모/요약하는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한편, 추론적 이해를 측정하는 문항에서는 상위 수준의 학생들이 대화를 기억하기 위해 상황을 마음 속에 상상하거나 메모/요약하는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영어과 모의고사 듣기 영역에서 문항 유형별로 학생들이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 그 양상을 실제 듣기 평가와 연계하여 설문조사 형태로 조사,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10개의 문항이 듣기 평가 문항 전체를 대표하기 어렵고, 전략 사용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 항목의 수도 6

개로 제한되어 있는 점은 아쉽다. 이와 같은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더 많은 유형의 듣기 문항을 포함하는 평가지와 다양한 형태의 전략을 측정하는 설문지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후속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연구의 타당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영어 듣기 지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적 함의를 시사한다. 우선, 학생들에게 듣기 전략을 교수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는 학생들이 듣기 전략을 학습한 경험이 부족하고 제한된 범위의 전략만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학습 배경 설문 결과, 듣기 전략 학습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23.5%에 그쳤기 때문에 전략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전략 사용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결과, 학생들이 특정 전략(답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선택지를 제거하기, 대화 상황 유추하기 등)에 치우쳐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교사들은 영어 수업 시간에 듣기를 지도할 때 학생들이 활용하면 효과적인 전략들을 소개하고 이를 문제 풀이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학생들이 제한된 범위의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문항 유형별로 효과적인 전략들을 다양한 형태로 소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사들은 대화/담화의 종류 및 문항 유형과 전략들을 연계하여 듣기 수업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전략 사용 후에 이를 평가,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전략 사용과 그 효과를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교재 집필자 또한 교재를 개발할 때 다양한 듣기 전략을 소개하고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이를 실제 연습할 수 있도록 활동을 구안,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교재와 교실 수업에 전략 기반의 교수(strategy-based instruction)를 반영한다면 학생들은 어휘, 문법 등의 언어적 지식, 화제(topic)에 대한 지식과 함께 전략적 지식의 활성화를 통해 능동적인 자세로 듣기의 과정을 즐기며 듣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김은이. (2014). *한국 중학교 학생들의 영어 듣기 전략 및 듣기 성취도와 과업 선호도*.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서울.

박경례. (2006). *학습자 불안과 전략이 영어 듣기·읽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서울.

박봉현. (2001). *보상전략과 인지전략이 영어 듣기이해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박상태. (2010). *듣기 평가 성적과 듣기 전략 및 불안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전주.

정혜진. (2002).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듣기 학습전략 사용과 듣기 능력향상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서울.

차미현. (2011). *고등학생의 듣기 능숙도에 따른 수준별 영어 듣기 전략 사용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Brown, H. D. (2014).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6th ed.). White Plains, NY: Pearson Education.

Chao, J. (1997). *The influence of strategy use on comprehension and recall of authentic listening texts by Chinese EFL students in Taiwa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Twin Cities.

Chung, H. J. (2006). A study of English listening proficiency and listening strategy use. *English Language Teaching, 18*(3), 253-277.

Cohen, A. D. (2000). Strategies-based instruction for learners of a second language. *NASSP Bulletin, 84*(612), 10-18.

Guan, Y. (2014). *The effects of explicit listening strategy instruction on the listening comprehension of English as second language (ESL) community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an Francisco, San Francisco.

Hsiao, T. Y., & Oxford, R. L. (2002). Comparing theories of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Modern Language Journal, 86*(3), 318-383.

Imhof, M. (2001) How to listen more efficiently: Self-monitoring strategies in liste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Listening, 15*(1), 2-19

Kang, D. H. (1997). *Assessing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in input-poor environments*.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s No. ED 413778

Kim, D. (1999). Listening comprehension strategies and their relationship with students' performance on the TOEIC listening test. *Korean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15*(2), 39-64

Kim, Y. (2006). The current state and efficient suggestions to improve on English education of the secondary school. *English Language Education, 33*, 37-65.

Ko, H. (2016). Listening strategies in the CSAT English and the TOEFL: Focusing on test types and listening proficiency. *Journal of the Korea English Education Society, 15*(1), 23-51.

Lee, J. S. (2011). Listening strategy use of Korean EFL middle school student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7*(1), 165-190.

Lim, M. K., & Cha, K. A. (2007). A study of listening strategy use by Korean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7*(1), 103-128.

Makarchuk, D. (2017). Variations in learning strategy use among good, average and poor EFL learners. *English Teaching, 72*(1), 25-47.

Moon, J. H. (2005). A study on effective level-based listening strategy of high school students.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10*(2), 135-162.

Murphy, J. M. (1987). The listening strategies of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college students. *Research & Teaching in Developmental Education, 4*(1), 27-46.

Nam, Y. K. (2015). Korean EFL students' strategy use in gap-filling inference items. *English Teaching, 70*(4), 81-107.

O'Malley, J. M., & Chamot, A. U. (1990). *Strategies used by second language learn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O'Malley, J. M., Chamot, A. U., & Kupper, L. (1989). Listening comprehension strateg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pplied Linguistics, 10*(4), 418-437.

Oxford, R. (1990).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What every teacher should know*. New York: Newbury House.

Oxford, R. (2011). Strategies for learning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Language Teaching, 44*(2), 167-180.

Preseley, M. (2000). What comprehension instruction be the instruction of? In M.L. Kamil, P.B. Mosenthal, P.D. Pearson, & R. Barr (Eds.), *Handbook of reading research*, Vol. 3 (pp. 545-561).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Vandergrift, L. (1997). The comprehension strategies of second language (French) listeners: A descriptive study. *Foreign Language Annals, 30*(3), 387-409.

Vandergrift, L. (2003). Orchestrating strategy use: Toward a model of the skilled second language listener. *Language Learning, 53*(3), 463-496.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Secondary, Tertiary

원혜주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01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E-mail: hellojess@hanmail.net

김성연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E-mail: sungkim@hanyang.ac.kr

Received in April 14th, 2018
Reviewed in May 26th, 2018
Revised version received in June 5th, 2018